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센터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음 5월 23일) 제23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경제의 미래...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기공식
 전북연구개발특구를 농생명·첨단소재 기반의 세계일류 연구개발(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기공식이 24일 전북혁신도시 민성동 1255번지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공시삽을 하고 있다.

전북경제 체질강화 예산 확보 총력

최용범 행정부지사, 기재부 찾아 농생명·미래신산업 등 건의
 27일까지 삭감방지 대응·내달 4일 전 지휘부 릴레이 방문

전북도가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1차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24일 기재부를 찾아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 이 같은 예산확보 전력투구 활동 배경에는 지난 5월 31일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된 전북도 부처예산은 6조3072억원으로, 부처단계 역대 최대예산을 확보해 전북 대도약의 발전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매년 국회단계에서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반영 사업 삭감방지와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 증액 활동으로 정부안 예산이 최대 편성되어 국회

에 제출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전략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최 부지사가 기재부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주요 과장을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편의식) 식품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원 지원과,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청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 설계 용역비 10억원, 도내 지역 생명공학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검정기준에 맞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5억원 반영과 농업분야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농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비 20억원을 요구했다.

또한,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지역을 홀로그램 4차산업의 전진 기지로 구축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비 265억원 반영과 군산항 자동차 수출물동량 확보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할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국비 50억원, '조선기자재기업이 해상 풍력구조물 제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국비 90억원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잼버리 대회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 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남북도' 등 새만금 SOC 5개사업 국비 6540억원 지원 요청과, 새만금 신항

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 확대, 재정사업 전환'과 함께 내년 설계용역비 51억원, 2023세계잼버리 대회 핵심기반 시설 인 상하수도 및 주차장 등의 시설 구축비 35억원이 정부안 예산에 포함되도록 설득했다.

아울러,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속분뇨가 새만금호의 주요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익산천, 용안천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익산 왕궁, 김제용지 현업측사 오염원 저감을 위한 '익산왕궁 현업측사 매입비 120억원, 김제 용지측사매입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원 요청과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전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20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심의를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지휘부 및 실국 등이 총력 매진하고, 도와 시군, 정치권 등과 함께 7월 4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초기청자 가마터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국가 사적 지정 예고

우리나라 청자 발생·변천 과정 보여줘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초기 청자 가마터인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청자요지(鎭安 道通里 靑瓷窯址)가 사적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에 조성된 초기 청자요지이다. 요지는 중평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중평마을 전역에는 청자와 갑발편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는 마을 일부에 대규모 요지구 퇴적층이 잔존하고 있다.

요지의 존재는 지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으며, 2013년 최초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7년까지 총 5차례의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10~11세기에 걸쳐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가마터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자를 제작하던 시기 청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전축요)와 벽돌가마 이후 청자를 생산했던 진흙가마(토축요)가 모두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마 축조 양식의

변화는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전환하는 한반도 초기청자 가마의 전환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조사된 벽돌·진흙가마는 총 길이 43m로,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초기 청자가마이며, 최초 가마의 벽체를 벽돌로 축조하였다가 내벽을 진흙·갑발을 활용하여 개보수하는 방식으로 요업을 지속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가마 내부와 대규모 폐기장에서는 해무리굽완, 잔, 잔받침, 주전자, 꽃무늬 접시 등 다양한 초기청자와 다량의 벽돌과 갑발 등 요도구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ㅈ'자형 등의 명문이 새겨진 청자를 비롯하여 고누 놀이가 새겨진 갑발, 청자가마의 배연공으로 추정되는 벽체편 등의 유물도 출토되었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가마의 변화양상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 청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수산대 분교 법안 철회해야"

전주시의회, 성명서 채택

전주시의회가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철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제3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 이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농대 분교 법안 철회성명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농업과 혁신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한농대 개정법률은 전북을 차별화된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한농대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마저 한농대 제2캠퍼스 설치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교검토를 즉각 폐기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송호철 기자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가 전북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1주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